강진군, 다문화 유학생 포용 '글로벌 인재 거점도시' 구축

교육청 등 11개 기관 청소년 정책 협약 '통합 공동체' 조성
이주청소년 2028년 300명 거주 전망…사회 정착 등 지원

강진군이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 '글로벌 인재 거점도시' 기반 구축에 앞장을 서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교육청과 경찰서 등과 청소년 정책 협약을 하고, 이주배경 청소년과 유학생 증가에 대응한 포용적 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약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글로벌 유학생 유입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강진군과 교육청, 경찰서, 의료원, 학교, 복지기관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사전 작성된 전자 문서에 온라인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 절차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강진군의 청소년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354명으로, 2020년 대비 약 14.6% 감소했다. 반면 이주배경 청소년과 유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280가구에 241명의 이주배경 자녀가 거주 중이며, 올해 7명의 베트남 출신 고등학생의 입학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100명의 해외 유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외국 유학생 300명이 강진에서 학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생명과학고와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가 주요 수용처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정책 실무협의체 운영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개설 ▲청소년 활동 경진대회 및 글로벌 페스티벌 공동 추진 ▲다문화 정착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평가하며 청소년의 사회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유학생과 지역 청소년이 공존하는 통합 공동체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고 향후 전국 농산어촌의 표준모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강진을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 12일 강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강진원 강진군수를 포함한 11개 기관·단체장이 협약서에 온라인 방식으로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에 국내 최대 400MW '신재생에너지 단지'

㈜쏠리스장흥과 조성 협약
회진면 진목리 일원 90만평
7000억 규모 민간투자 유치
주민들에 '햇빛연금' 지급

장흥군이 지난 12일 ㈜쏠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관내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최근 ㈜쏠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주식회사 쏠리즈장흥, 한국수력원자력,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다스코, BS한양 등 주요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 약 90만평 규모의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6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7006억원이며, 장흥군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구조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은 수익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군은 이를 통해 주민 참여도와 지역 수용성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집적화단지 조성 신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쏠리스장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적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엄다면·대동면 생활 인프라 개선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 선정…2030년까지 75억 투입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는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엄다면과 대동면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주민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은 사업설명회와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로 추진하는 엄다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엄다리 일원에 면사무소를 포함한 복합다목적센터를 신축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해 총 55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2단계 대동면 사업은 주민 복지와 문화 향유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건강·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한마당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을 중심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함평군 농촌협약(2023~2027년, 총 573억원)과 별도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구축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24시간 아이 돌봐 드려요"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 '전남형 돌봄'…다음달부터 사전 예약

장성군의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 1년 내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당 요금 1000원으로 월 최대 6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 가능하다.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11월 온 가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가족행복센터를 장성읍에 개관, 장난감도서관과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수의 복지기관을 이용하며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6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2028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각각 완공된다. 서부권의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읍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 〈장성군 제공〉

화순군, 중국발 비래해충 유입에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 벼 재배 농가 대상
ha당 18만원…작업비 2회분

? 비래해충
중국 등지에서 봄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옥수수, 수수, 보리 등 벼과 작물을 비롯해 배추과, 박과, 가지과 작물 등에 광범위한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들을 말한다. 보통 열대 또는 아열대성으로 국내에선 월동하지 못하고 주로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개체가 국내로 이동해 피해를 준다.

도암면 친환경재배지에서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최근 중국발 비래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벼 친환경 재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 작업비 2회분인 ha당 1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배계획 면적은 51개 단지, 505ha로 친환경 인증 미획득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 비래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순에도 지난 5월 벼과 작물에 해로운 멸강나방 유충과 6월 검역 해충 관리급인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됐다.

또 벼 모내기 후 생육에 피해를 주는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 초기 발생 해충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현장 지도를 강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친환경 재배지는 병해충 적기 방제가 더욱 중요하므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자전거, 안전교육 받고 제대로 즐겨요"

나주시, 11월까지 안전교육 시범사업…운전체험장서 이론·실기

나주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11월까지 '자전거 안전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나주시 자전거 운전체험장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로 월 1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20~30명 내외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론 교육 시간엔 자전거 관련 법규, 안전 장비의 중요성,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등을 알려준다.

실전 체험은 전문강사로부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출발·정지 요령, 장애물 회피, 방향 전환 등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전거 조작 능력을 익히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중장년 자격증 취득 돕습니다"

미취업자 대상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12월 10일까지 신청

화순군이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시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료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방·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된 서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께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의 장벽이 높다"며 "이번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중장년층의 재도전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강진군이 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환경개선을 위한 '2025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는 개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충전기로 강진군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27대를 선착순 보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강진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세대) 또는 법인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설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직접 계약 후 신청서류를(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갖춰 강진군청 환경과 담당자 이메일(kga736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관리팀 담당자(061-430-3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